

전남광주 극장가 ‘기지개’…1년 새 관객수 27% 증가

광주 25.5%·전남 30.6% ↑…매출도 33% 늘어

작년보다 91만명 증가…한국영화 회복세 견인

코로나19 이후 오랜 침체기에 빠졌던 극장가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영화 관객이 크게 늘면서 전체 관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영화관을 찾은 관객은 모두 421만338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0만

693명보다 91만2691명(27.7%)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전남은 올해 181만7910명이 영화를 관람해 지난해 139만1675명보다 42만6235명(30.6%) 늘었다. 광주는 239만5474명으로 지난해 190만9018명보다 48만6456명(25.5%) 증가했다.

관객 증가와 함께 영화관 매출도 크게 뛰었다. 올해 광주 지역 영화관 매출은 232억6058만원으로 지난해 176억4358만 원보다 31.8% 증가했다. 전남 역시 165억

4164만원으로 전년 123억3250만원보다 34.1% 늘었다.

광주특별시 지역 전체 매출은 398억220만원으로 지난해 299억7608만원보다 98억2612만원(32.8%) 증가했다. 관객 증가율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높은 만큼 극장가 회복이 단순한 관객 수 증가를 넘어 실제 소비 확대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영화가 지역 극장가 회복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광주특별시에서 올해 한국영화를 관람한 관객은 258만7084명으로 지난해 191만5318명보다 67만1766명(35.1%) 급증했다. 반면 외국영화 관객은 162만6300명으로 지난해 138만5375명보다 24만925명(17.4%)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관객 91만2691명 가

운데 한국영화 관객 증가분이 67만1766명에 달한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증가한 영화 관객의 73.6%가 한국영화 관객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한국영화의 선전은 뚜렷하다. 광주의 한국영화 관객은 지난해 107만3467명에서 올해 143만7685명으로 36만4218명(33.9%) 늘었다. 전남은 84만1851명에서 114만9399명으로 30만7548명(36.5%) 증가했다.

한국영화 관객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남이 광주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전남은 전체 영화 관객 증가율도 30.6%로 광주보다 높은 만큼 한국영화 흥행이 지역 극장가 회복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극장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극장 관객은 57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고, 매출액은 5790억원으로 41.9%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왕과 사의 남자’가 약 169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을 이끌었고, ‘군체’와 ‘삼목지’ 등 한국영화가 흥행 상위권에 오르면서 국내 영화시장 전체의 반등을 견인했다.

광주특별시에서도 이 같은 전국적인 흥행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영화 관객이 올해 흥행작들의 잇따른 등장으로 크게 늘면서 관객들의 발길이 다시 극장으로 향하

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회복세가 지역 극장가의 구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영화 관람 방식이 OTT 등으로 다변화된 데다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문화시설 접근성 차이 등으로 극장산업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영화관 관계자는 “최근 흥행작이 이어지면서 주말이나 휴일을 중심으로 관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한국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꾸준히 흥행하고 관객들이 극장을 찾은 만한 콘텐츠가 이어진다면 지역 극장가의 회복세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TP, 식품·바이오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21일까지 20개사 모집…기업당 최대 1억 지원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전남의 농수산물 자원을 고부가가치 식품·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전남TP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과 함께 ‘2026년 전남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기초)’ 참여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 발맞춰 단순 가공 중심의 지역 식품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풍부한 농수산물·생물자원을 기능성 소재와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소재한 식품·바이오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다. 사업비의 60%를 지방비로 지원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30%씩 부담한다.

지원 유형은 ‘기초’와 ‘동일수준’으로

나뉘며, 기업당 최대 1억원의 구축비를 지원해 스마트 HACCP 및 GMP 관련 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을 돕는다. 올해는 ‘기초(동일수준)’ 유형으로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HACCP과 GMP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식품·바이오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이나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익현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 식품·바이오 기업의 생산과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스마트 HACCP과 GMP 도입 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전남본부와 전남광주소방본부,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 용산면 일대 가뭄 피해 농지를 찾아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가뭄 농가에 농업용수 긴급 지원

전남농협·장흥군·소방본부, 복합재난 대응

전남농협과 전남광주소방본부, 장흥군이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농협전남본부와 전남광주소방본부,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 용산면 일대 가뭄 피해 농지를 찾아 농업용수 부족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남광주소방본부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지에 소방차량을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으며, 장흥군도 살수차량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농협전남본부는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하며 폭염 속 건강관리와 안전한 농작업을

다부했다.

이번 지원은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는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대응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협전남본부는 관내 농축협과 함께 500여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쿨스카프와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양수기와 펌프 등 농업용수 확보 장비와 영양제·약제 등을 지원하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지난 13일까지 4일간 전북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다재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미래 세대에 금융교육·진로탐색 기회”

다문화가정 초등생 대상 3박 4일 ‘다다캠프’

광주은행은 지난 13일까지 4일간 전북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다재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다캠프’는 JB금융그룹의 핵심 사회공헌사업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현재 관측, 전통 연희예술 체험, 찾아가는 생태교실, 진로 매직 콘서트 등 문화와 금융, 과학, 예술, 진로 분야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광주은행 임직원이 진행한 ‘금융 골든벨’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과 기초 경제관념을 익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캠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콘텐츠기업 ‘킬드런’ 작품,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전일빌딩245·광주영상복합문화관서 콘텐츠 영상 전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일빌딩245 1층 프리즘245 전시관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정면 외벽에 설치된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월(T월)에서 투자진흥지구 유치기업인 ㈜킬드런 대표작가 김석원(활동명 킬드런)의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 영상 전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광주에 유치된 콘텐츠 기업과 작가의 창작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대형 T자형 LED월에서는 김석원 작가의 대표작을 풀스크린 영상으로 선보인다. 전일빌딩245 1층 프리즘245에서는 다면영상과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등 융복합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회화 작품을 색다른 방식으로 경

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일빌딩245에서는 김 작가의 대형 유화 작품 ‘51815’도 특별 전시한다.

‘51815’는 227×181cm 크기의 150호 유화 작품으로, 광주의 5·18과 대한민국 광복절인 8·15에서 영감을 받아 두 날짜를 하나의 숫자로 연결해 작품명을 붙였다.

작품에는 ‘기억·자유·희망·미래’를 주제로 역사적 기억이 현재를 거쳐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김 작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자유와 희망의 의미를 하나의 시 단축 위에서 표현했다.

‘51815’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양림동 작업실에서 제작됐다.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상상의 작품을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GICON 측 설명이다.

김석원 작가는 ‘킬드런(Kildren)’이라는 활동명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ill’과 ‘Children’을 결합한 이름으로 기존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려는 작가의 지향점을 담았다. 김 작가는 BTS, G-DRAGON, 박재범, 태연 등 아티스트를 비롯해 나이키, 삼성 등 다양한 기업·브랜드와 협업하며 음악적 감각을 회화로 확장해왔다. 강연과 교육 활동을 통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GICON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광주에 유치된 콘텐츠 기업의 창작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회화와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기업과 지역 문화공간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이승홍 기자 photo25@

영화음악 크리에이터 지원

광주음악창작소, 교육생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 광주음악창작소는 ‘영화음악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 뮤지션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2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영화음악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미디어 음악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영화음악 분야를 신설했다. 앞서 게임사운드 분야에서는 5팀을 선정해 게임사와 매칭을 완료했다.

영화음악 분야는 지역 뮤지션의 활동영역을 영화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참가자는 영화음악 IP를 개발하고 사전 매칭된 영화사의 작품에 직접 음원을 적용하게 된다. 향후 영화 개봉과 영화제 출품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졸업생(졸업 후 10년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 음악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사운드 프로덕션’과 ‘뮤직 비즈니스’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총 30명 안팎을 선발한다. 사운드 프로덕션 10명, 뮤직 비즈니스 20명 규모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사운드 프로덕션 과정은 프로툴즈(Pro Tools) 운용과 녹음 실습을 중심으로 총 8강으로 진행된다. 돌비 애트모스 프로페셔널 국제공인강사인 임형준 사운드 프로듀서가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한다.

뮤직 비즈니스 과정에는 음악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눈치 없는 평론가’ 저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인 서정민강 대중음악의 견가를 비롯해 부산 로컬 밴드에서 글로벌 무대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세이슈미’ 최수미 보컬, JYP A&R팀 출신으로 A&R 전문회사OCEANCAVE를 설립한 배수정 대표, 인디음악 유통사 미라볼뮤직 이창희 대표,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 ‘잔다리페스타’ 공연영 기획자가 참여해 모두 5차례 강연을 진행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광주음악창작소가 지역의 우수한 음악 인재들이 지역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